



광남일보



광주시-금융공공기관, 대학생 취업 지원
13개 기관 참여 인재양성 업무협약



완도군, 지속가능미래 4대 전략 수립
신우철 군수 “군민 체감형 실질적 정책 추진”



“전남도민 스포츠 축제 준비 마쳤다”
18일 개막...김한중 군수 “장성·전남 도약을”



조빈, 광주FC ACLE 응원곡 공개
16일 코리아컵 출경기서 특별 공연

조간 제782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음력 3월 19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둔 15일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광장 화단에 설치된 노란 비람개비 304개를 바라보며 추모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결혼 10쌍 중 1쌍은 ‘다문화’

9.1%·12.5% 전년비 2%p 늘어

가구 비중 영암군 3.8% ‘최다’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광주·전남지역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전체 혼인 건수 5248건 중 9.1%인 475건이 다문화 혼인이다.

전년도 다문화 혼인 비중(4981건 중 355건·7.1%)과 견줘 2.0%p 상승했다.

또 2023년 전남 전체 혼인 건수는 6241건, 이 중 12.5%인 782건이 다문화 혼인으로 조사됐다.

1년 만에 2.1%p 올랐다. 다문화 이혼 역시 양 지역 모두 늘었다. 광주의 다문화 이혼 건수는 2432건 중 206건으로 8.5%다. 1년 전(2379건 중 144건·6.1%)과 비교해 2.4%p 증가했다. 전남은 2022년 3597건 중 301건으로 8.4%였지만 이듬해에는 3536건 중 306건인 8.7%로 0.3%p 올랐다.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 수 비중은 광주는 1.4% (63만9311가구 중 8700가

구), 전남은 2.0% (80만8812가구 중 1만6325가구)다.

전년도와 비교해 광주 (63만3757가구 중 8455건·1.3%)는 0.1%p 늘었고, 전남 (79만6729가구 중 1만1566가구 중 2.0%)은 같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먼저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다문화 가구 비중이 2.2% (17만1792가구 중 3750가구)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북구 (19만2754가구 중 2341가구 중 1.2%), 남구 (9만1218가구 중 959가구 중 1.1%), 서구 (12만9910가구 중 1196가구·0.9%), 동구 (5만3637가구 중 454가구·0.8%) 순이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의 다문화 가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만7552가구 중 1053가구로 3.8%였다.

다음으로 장성군 (1만8232가구 중 532가구·2.9%), 진도군 (1만4263가구 중 387가구·2.7%), 해남군 (2만9997가구 중 794가구·2.6%) 등 순을 기록했다.

광주는 전체 다문화 가구 중 아파트 거주 (5389가구) 비율이 61.9%를 차지했고, 전남은 절반 (50.0%)이 단독주택 (8163가구)에 살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광주는 다문화 가구원 2만5903명 중 10세 미만인 16.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전남 (5만2817명)은 10대가 9805명으로 18.5%에 달했다.

국적별로 보면 광주·전남 모두 베트남이 각 2794명, 57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국 (광주 1380명, 전남 1859명)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세월호 아픔 ‘11번째 봄’ 광주시민들이 기억해요”

풍암동 마을공동체 ‘풍두레’

2014년부터 희생자 피케팅

기억·책임 강조 추모 목소리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광주 시민들이 기억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7시50분 광주 서구 풍암사거리.

등굣길 학생들과 출근길 차량들 사이로 노란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은 풍암동 주민들로 이뤄진 마을공동체 ‘풍두레’다. ▶관련기사 14면 피켓에는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기억·책임·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2014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촛불행동이 중단되자 ‘풍암동에 서라도 이어가자’는 뜻으로 ‘풍암촛불모임’을 결성했고, 이듬해 명칭을 변경해 풍두레를 출범시켰다. 이후 풍두레는 매주 수요일마다 풍암동 일원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었고, 풍암사거리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주태석씨 (54)는 “바·눈과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날이나 명절 아침에도 당번을 정해가며 운영했고, 그동안 한 명도 빠지

지 않아 800회가 넘었다”며 “하루라도 기억하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다시 거리로 나온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나던 학생, 직장인 등 광주 시민들은 이들의 피케팅에 대해 다양한 반응으로 공감해 줬다.

어떤 이는 차창 너머로 고개를 숙였고, 또 어떤 이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발걸음을 멈춘 일부 행인은 피켓에 적힌 문구를 입으로 곱씹기도 했다.

김지연양 (18)은 “학교에서 세월호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막상 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무겁다”면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진다”고 말했다.

풍두레는 풍암저수지 산책로 인근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적힌 노란 현수막도 설치했다.

박종평 풍두레 대표는 “이름 하나하나를 단지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다. 기억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는 우리에게 말이 아닌 실천의 힘을 보여줬다. 연대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과제를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알림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아카데미 17일 원우회의 밤...‘화합의 장’ 마련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회는 17일 오후 6시 광주 북구 연제동 메리인가든에서 원우회의 밤을 마련해 원우 간의 친목 도모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일 시 : 2025년 4월 17일(목) 오후 6시
△장 소 : 메리인가든 (광주시 북구 연제동 394-21층)
△문 의 : 광남일보 사업국 (062-370-7090)
△주 최 : **광남일보**

韓대행 “관세 부담 최소화 위해 협상에 최선”

기아오토랜드 광주 방문...“필요한 대책 추가 마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미국 관세 부과와 관련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한 대행은 이날 기아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어긋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조선·무역균형·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자동차 산

업과 부품산업, 철강·알루미늄 산업 등 높은 관세를 받는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높은 관세 충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지난 9일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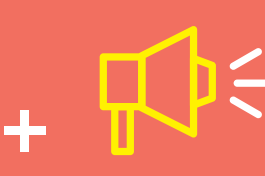
전현아·장승기 기자 aura@gwangnam.co.kr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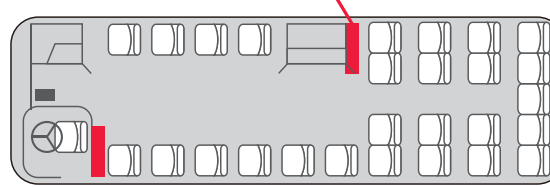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